

유물론적 사고의 북한주민을 향한 기독교적 접근: 바울의 아테네인 접촉을 중심으로

A Christian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Residents of Materialism: Centered on Paul's Athenian contact

조해준, 송창호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Hae-Jun Cho(ben_cho@naver.com), Chang-Ho Song(sch219@syu.ac.kr)

요약

70여 년 동안 단절되었던 남한과 북한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것은 오랫동안 북한 주민과 접촉을 원했던 남한의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에게 기독교가 접촉점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그들의 사상적 배경을 파악하고 기독교가 가진 기별과의 유사점을 찾아내며,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기독교를 접촉했던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것을 현재 남북한의 실정에 맞게 적절히 상황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들의 사상적 배경은 공산주의의 기본 철학인 유물론과 그 유물론에 근거한 주체사상이다. 기독교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세계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물질적 세계를 조물주의 중요한 창조물로 인식하는 점에서 기독교는 유물론적 사고와의 접촉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유물론 사상과 기독교의 접촉사례는 초기 기독교 사회의 헬라철학과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비유대인 접촉의 선봉에 있었던 바울의 아테네인들과의 대화에서 구체적인 예를 볼 수 있다.

■ 중심어 : | 유물론 | 주체사상 | 북한 | 기독교 | 창조 |

Abstrac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hich have been separated for 70 years, a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his is very good news for Christians in South Korea who have long wanted to contact with the North Koreans. But it is not easy for Christianity to find contact points for North Koreans who have lived in a society that does not accept religion.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grasp their ideological background, to find similarities with the message of Christianity, to search the Bible for cases of contact with Christianity in similar situations, and to appropriately contextualize them according to the present situ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North Korean people is the materialism which is the basic philosophy of communism, and the Juche idea based on materialism. Christianity is negative about the world view that spiritual things are good and material things are evil. Some contact points between Materialistic thinking and Christianity can be found in recognizing the material world as an important element of God's creation. The contact between materialism and Christianity also can be found in dialogue with the Greek philosophy in early Christian era, particularly in the conversation between Paul, who were at the forefront of non-Jewish contact, and Athenians.

■ keyword : | Materialism | Juche Ideology | Point of Contact | Christianity | Creation |

I. 서론

남북이 분단된 지 올해로 74년째를 맞고 있다. “일제의 무력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일본사람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킨다[1].”는 명분하에 한반도는 세계열강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남과 북은 교류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문화와 사상과 언어의 이질화는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핵미사일의 개발과 생산을 중단하고 경제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며, 정상 국가로 세계 무대에 나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 이를 위해 남북한뿐만 아니라 북미 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개발과 정상국가로의 길은 세계 국가와의 교류를 수반하게 되며 이는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변화로 머지않은 장래에 북한의 주민들에게 기독교 선교적 접촉의 길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북한주민을 향한 기독교 선교적 접촉에 대한 연구이므로 일반적 교류나 타종교의 관점이 아닌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연구를 제한한다.

기독교가 북한주민과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사고체계와 철학적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에 따라 그들에게 생소한 기독교적 가치를 최대한 이질감 없이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II. 북한 주민의 사고체계의 철학적 기반

1. 유물론

북한사회는 1945년 공산화된 이후, 70여 년 동안 폐쇄정책을 고수하면서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있었다. 김일성은 1977년 9월5일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 교육이란 “후대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김일성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혁명투사를 양성하는 과학적 원리와 방법”이라고 정의하면서, 북한의 교육은 “공산주의 인간을 양성하는 사상·문화교양의 무기”이며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이

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명시해 놓았다[3][4]. 즉, 북한의 교육은 독특한 북한식 공산주의적 인간상을 구현하는 것인데, 북한식의 공산주의적 인간상이란 공산주의 이념과 수령에 대한 절대복종의 주체사상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언급된 공산주의 이념이란 마르크스주의의 철학 학설로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창시한 공산주의의 세계관인 변증법적 유물론을 의미한다[5]. 따라서 유물론은 북한 공산주의 이념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물론’이라는 명칭은 18세기에 성립되었지만 유물론적 사고방식은 이미 테오크리토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리스철학자들에게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6-8]. 이후 18세기에 베이컨, 가생디를 선구자로 하여 영국과 프랑스에서 개별적으로 시작되었다가 후에 독일에서 포이어바흐가 발전시켰다. 그의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변증법적 유물론을 확립하여 공산주의이념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9].

2. 유물론을 근간으로 하는 주체사상

북한식 공산주의의 독특한 특징인 주체사상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심지어 수령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수령교사상으로[10], 미국에서 종교 관련 통계를 조사해 공개하는 ‘어드իր런츠 닷컴’(adherents.com)은 주체사상을 세계 10대 종교로 분류했다[11]. 이러한 주체사상은 북한정권을 유지하고 일당 일인독재체제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정치철학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체사상도 유물론에 근거하고 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해서, “주체철학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새롭게 밝힙니다. 세계가 의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 운동하고 변화, 발전한다는 것은 이미 유물변증법(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하여 밝혀졌습니다. 세계가 본질에 있어서 물질이고 물질로 통일되어 있으며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 운동하고 변화 발전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하

면서 주체사상이 유물론에 근거한 세계관임을 설명하고 있다[12].

III. 유물론의 정의와 주요 특징

1. 유물론의 핵심개념

‘유물론(Materialism)’은 유물주의라고도 하며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창시한 공산주의 세계관의 핵심이다. 유물론은 세계의 본질을 스스로 운동하고 발전하는 물질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의식(사고)은 그 하나의 발전 단계로서의 특정한 유기적 물질(뇌수)의 소산이며, 인식이란 인간이 실천을 통해 얻어진 물질의 모사의 과정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정신활동은 물질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과일 뿐, 물질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13]. 따라서 유물론에서는 물질을 근본적인 실체로 생각하고, 마음이나 정신을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것으로 본다.

다른 사관들은 주로 역사의 발전에 대한 해석과정에서 인물, 사건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해, 유물론은 역사해석에 있어서 물질적 생산력을 가장 중요시한다. 따라서 유물론은 인간중심이나 생명중심이 아닌, 물질중심의 역사관을 표방하며 물질을 중요시하며 상대적으로 인간과 생명은 경시된다[14]. 그러므로 공산국가에서는 인권이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으며, 사람이 물질의 생산과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유물론은 이러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산주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배경이 되며, 따라서 유물론적인 공산주의이념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2. 유물론의 주요 특징

2.1 무신론

공산주의의 기본 이념인 유물론은 유형의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비물질적인 마음이나 정신을 물질의 부산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존재인 신을 부인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 유물사관은 철저하게 무신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15]. 신과 같은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의 개입을 부정하

거나 또는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김정일도 그의 저서에서 세계가 그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질 자체의 법칙에 따라 운동하고 변화, 발전한다는 것이 유물변증법(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하여 밝혀졌다고 주장했다[12]. 유물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은 물질이기 때문에 신과 같은 비물질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유물론은 언제나 무신론을 지지해 왔으며 유물론자는 거의 모두가 무신론자이다[15].

2.2 진화론

유물론은 세계의 본질적 구성은 물질이며, 물질 자체의 법칙에 따라 운동하고 변화, 발전하면서 세계가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초기에 진화론에 대한 이해가 없었지만, 엥겔스가 먼저 다윈의 진화론을 접한 후 마르크스에게 진화론을 소개했다[16]. 진화론은 엥겔스에게 자신의 유물론적 견해에 대한 확신을 떠받쳐주는 경험과학적 지주가 되었다[17]. 두 사람은 진화론에 대한 열렬한 신봉자들이 되었으며, 공산주의 유물사관과 진화론을 결합시켜 공산주의의 또 하나의 사상적 토대인 과학적 무신론을 형성하였다.

2.3 영적 세계 부정

유물론은 감각만을 인식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감각론을 주장한다. 감각론은 감각을 지식의 유일한 근원으로 보는 인식론으로 지식의 원천이 감각에 있다고 주장한다. 감각은 객관적 실재를 모사(模寫)한 것이고 감각을 통해 인간의 주관 속에 형성된 개념은 객관적인 물질세계에 연결되어 생겨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물론은 인식의 내용을 외적인 물질계에서만 받아들이고 내적이고 주관적인 인식, 그리고 감각적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선험적(先驗的)인 인식을 부정한다[8]. 따라서 내적이고 주관적이며 선험적 인식의 범주에 속하는 영적 인식과 영적 세계를 부정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부인한다.

2.4 인간의 자유의지 부정

유물론은 과학주의 또는 실증주의의 경향을 띠고 있다. 유물론이 물질적 생산 활동을 중시하는 이유들 중

의 하나도 그것이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증주의적 관찰을 통하여 모든 사물의 변화와 사건은 인물,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질적 생산활동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일어나고 지배받는다는 결정론을 주장한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으며 세계는 어떤 법칙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인간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유물론은 사물과 현상이 보편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어느 경우에도 합법칙적 내지는 인과적 관련성의 탐구를 지지하고 초월적인 힘에 의한 설명을 거부한다[18].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신을 선택하거나 믿기로 결정하는 것의 가치 자체를 부인한다.

IV. 성경에 나타난 유물론 사회에 대한 접촉

사례: 바울의 아테네인 접촉

1. 초기 기독교시대 아테네인들의 유물론적 사고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고대종교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열정적인 활동가이었다. 바울은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했다. 회당에서, 시장 거리에서, 공회당에서, 가정집 등에서 대상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접촉 방식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사도행전 17장 16-34절에는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에서 이루어진 바울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아테네를 비롯한 로마제국은 헬레니즘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다. 헬레니즘은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을 통하여 동서의 문화가 융합되면서 탄생하였고, 작은 도시국가로부터 시작된 로마제국의 시대에 유럽의 중심 문화로 피어났다.

18세기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창시한 공산주의이념의 사상적 배경은 유물론이며 이 유물론은 데모크리토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리스철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다[6-8]. 로마제국의 문화는 그리스철학을 포함한 그리스문화가 오리엔탈문화와 만나 융합되면서 탄생한 헬레니즘인데, 유물론은 헬레니즘의 근간인 그리스철학의 한 요소로써 헬

레니즘문화로 녹아들어가 또한 헬레니즘문화의 한 요소가 된 것이다[19]. 따라서 아테네인들의 사상적 배경에는 유물론적 사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헬레니즘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무신론이다. 헤브라이즘의 관점에서 볼 때 헬라인들은 다신교를 가진 우상숭배자들이지만, 헬레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신은, 기독교에서 의미하는 우상의 개념이 아니며, 숭배의 대상도 아닌 상징적 의미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헬레니즘에는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헬레니즘의 신들은 그 전의 시대와는 다르게, 인간과 섞여서 살고 인간과 결혼도 하는 등, 인간화된 신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지만 신으로 개념화시킨 존재들이다. 종교다원주의 또는 다신교(다신주의)의 헬라문화가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면서 신인동형론이 등장하고, 종교가 제도화되며, 신화적 사고에서 철학적 합리적 사고화로 전환되면서 헬레니즘은 실제적 무신론을 띠게 되었다[20]. 이리하여 헬레니즘의 문화권은 무신론사상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헬레니즘이 추구하는 인간중심의 사상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로마제국의 세계관은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중심의 세계관으로 변천되었다. 따라서 인본주의와 인간중심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헬레니즘의 또 다른 특징으로 발전했다[21]. 따라서 아테네인들의 사상적 특징을 요약한다면 유물론 사상의 배경을 가진 인본주의적 무신론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바울의 접촉 사례는 문화적, 시대적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복한주민들과의 접촉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22].

2. 유물론적 사고의 아테네인에 대한 바울의 접촉 방법

2.1 성경 이외의 내용으로 접촉을 시도함

바울은 기독교적 접촉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상의 상황과 형편을 면밀히 파악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고린도전서 9장22절)으로 다가가는 최고의 전략이었다[23][24]. 이것은 아테네인들과의 접촉에서도 드러났는데 아테네의 토론장인 아레오바고에서 강론을 하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행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는 구약성경의 어떤

구절도 인용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메시아에 대해 말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바울이 사람들을 접촉할 때 특정한 방법이나 틀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그 지역 사람들과 상황에 적합한 접촉점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했으며[25][26] 아테네에서는 그들의 사상에서 접촉점을 찾고자 성경의 내용 이외의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2.2 아테네인들의 문화와 사상을 연구함

바울은 아테네에 머물면서 아테네인들의 문화와 사상들을 이해하고자 많이 노력을 기울였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아테네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들이 세워 놓은 많은 신상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시의 내용 중에 “우리가 그(신)의 소생이라”는 구절이 있음도 알고 있었다. 그는 또한 아레오바고라는 토론의 광장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주장들을 펼칠 수 있음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인들의 문화와 환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그들에게 생소한 구약성경을 접촉점으로 삼지 않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던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우주론적 논증으로 접근하였으며, 신의 소생으로서의 인간의 존귀함을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논증하였다. 그는 그들이 가진 문화와 언어를 접촉점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27].

2.3 신을 물질로 창조하고 유지하는 존재로 나타냄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연결고리로 하여 아테네인들과의 접촉점을 찾아갔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이란 모든 물질에는 생명(혼, 마음)이 있다는 물질론적인 사고방식인데 이것은 유물론을 근거로 더 발전한 철학사상으로 사람의 인식을 넘어선 어떤 신적인 세력이 있으므로 그 세력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들 모두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범신론적인 사고방식이다[28][29]. 바울은 이것을 접촉점으로 활용하여 그들이 알지 못했던 조물주의 존재를 증거했다. 바울의 기별의 핵심 내용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곧 물질세계를 만든 존재이며, 따라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

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아테네인들이 가졌던 유물론에 근거한 물질론적인 사고방식을 접촉점으로 활용하여 물질이 발전하여 된 신이 아닌, 물질을 존재하게 하고 그 물질에 생명을 부여하며 유지시키는 조물주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하였다.

2.4 인류는 흙(물질)으로 만들어진 동일공동체임을 강조함

바울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인간이 흙이라는 물질로부터 존재하게 된 혈연공동체임을 강조하였다. 아테네인들은 그들이 아티카(Attic)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동일한 족속이요 한 혈통임을 강조하여 관계적,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였다[30].

2.5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 신이 물질화되었음을 설명함

성경에는 바울이 아테네인들에게 성육신한 예수를 증거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으나, 회개와 부활을 설명하면서 예수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의 성육신과 죽음을 강론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성육신하여 육체로 오셨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아테네인들에게 신인 예수가 물질이 되었으며, 물질이 된 예수가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했을 때도 여전히 물질로 구성된 육체를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유물론적 사고체계 안에서 기독교적 접촉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V. 바울의 접촉 사례를 통한 북한주인을 향한 기독교적 접촉 방안

1. 다양한 접촉 방안 시도

바울은 특정한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몇 사람이라도 더 접촉하고자 그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하였던 것에서 과감히 벗어나 아테네에서는 철학적 논리와 사고로 대중 앞에서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70여 년 간 폐쇄되었던 북한의 실상과 현실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이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일은 고착화된 전략이나 방법만을 고집해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특별히 서구사회나 남한사회에서 성공적인 방법이 북한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개방이 되면 현실은 예상했던 것과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먼저 남한의 기독교인들에게 사고의 유연성이 절실히 필요 된다.

2. 북한주민들의 문화와 언어를 통한 접촉

70여 년 동안 단절된 북한의 문화와 언어는 우리의 그것들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왜곡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로 북한주민들을 접촉하려 한다면 그것은 비효과적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불행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적인 교육과 준비가 매우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들의 문화와 사고체계가 서구사회나 남한의 그것과 같아져야 한 다거나 같아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적 접촉은 한 사회가 가진 고유한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꽃피우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타민족을 식민지화 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고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파괴하고 단죄했던 일들은 후에 부메랑이 되어 그 사회에서 기독교가 쇠퇴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사실을 교훈으로 받아야 한다.

북한의 문화를 단죄 또는 비하하는 조그마한 행동이나 말도 접촉점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가진 유물론적 사고와 심지어 수령에 대한 숭배까지도 접촉점으로 활용하여 바울처럼 진정한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시도

해야 할 것이다.

3.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창조, 성육신, 부활)을 유물론적 관점으로 소개

바울이 유물론적 사고를 가진 아테네인들에게 조물주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했던 것처럼, 유물론적 사고를 가진 북한주민들에게 영적인 존재로서 보다는 물질을 선하게 여기고 그것을 존재케 하고 지금도 여전히 물질 세계를 유지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의 존재가 물질의 존재와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받아들이도록 논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유물론의 역사해석의 특징은 물질적 생산력을 중요시하는 것인데, 물질의 생산성은 바로 모든 물질을 창조하고 모든 물질을 소유하여 모든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성육신은 다소 어려운 개념일 수 있으나 비물질적 존재인 신이 물질적 존재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물질이 모든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유물론적 관점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예수의 부활체는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여전히 물질적 존재인 육체를 유지하고 있음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유물론적 사고를 가진 북한주민들에게 영적 사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4. 한민족공동체임을 강조하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함

바울이 제시한 인류전체가 한 족속이라는 개념은 민족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31][32]. 동일한 물질(흙)을 재료로 삼아 한 존재(조물주)가 생명을 부여하였으며, 동일한 조상(아담)을 가졌다는 기독교적 개념은 오랜 기간 분리된 사회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혈통적으로 동질적 존재됨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언어와 풍습이 비슷하거나 단군이라는 동일한 존재의 후손이라는 한 민족적 동질감을 넘어 인류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일체감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북

한 주민을 인류 전체의 한 일원임을 자각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VI. 결론

바울의 활동에서 비유대인과의 기독교적 접촉의 대표적인 사례인 아테네인들은 그 사상적 특성에 있어서 유물론사상의 배경을 가진 인본주의적 무신론이라는 점에서 북한주민들과 공통점을 가진다. 아테네 사례는 유물론과 창조기사의 유사점을 접촉점으로 활용하여 아테네인들에게 물질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조물주의 존재와 육체(물질)로 성육신하고 육체(물질)로 부활한 예수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바울의 아테네인 접촉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유물론사상을 접촉점으로 하여 기독교의 핵심기별인 창조와 성육신, 그리고 부활을 유물론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나 70여 년 동안 단절된 북한사회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가치관과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북한주민들을 향한 기독교적 접근에 관한 본 연구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金正은시대가 시작된 이후 북한사회는 전과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경제체제와 더불어 사회, 문화,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선교적 접근방법에 대해서 경직되지 않는 유연성으로 발상의 전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향후 북한의 변화에 따라 북한주민들에게 대한 기독교적 접근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 문헌

[1] Mark E. Caprio, *Japanese Assimilation Policies in Colonial Korea 1910-1945*,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9.
 [2] YTN, *빠르게 변신하는 김정은... 정상국가화 의도? 2018. 3. 10.* https://www.ytn.co.kr/_ln/0101_201803100501091334

[3] 통일교육원, *교육테제 발표 15주년 교육일군대회에 보낸 당 중앙위 축하문(92. 9. 5)*, *북한이해*, 양동문화사, 1997.
 [4]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제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5] V. G. Afanasyef, *변증법적 유물론*, 백두, 1988.
 [6] 원석영, “흠스의 도덕철학과 유물론,” *철학적 분석*, 제 20호, pp.215-261, 2009.
 [7] 슈베글러, *서양철학사*, 일신서적출판사, 1991.
 [8]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중앙문화, 2009.
 [9] R. S. 바가반, *마르크스주의 철학 입문*, 책갈피, 2001.
 [10] 유석렬, *정세와 선교 2012년 1월호*, 모퉁이돌 선교연구원, p.11, 2012.
 [11] 세계일보, ‘주체사상은 세계 10대 종교’ 마오이즘보다 훨씬 더 종교적, 2007. 5. 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0225531>
 [1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 *주체철학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13] 이철수 외, *사회복지학사전*, Blue Fish, 2009.
 [14] F. V. 콘스탄티노프, *사적유물론*, 새길, 1987.
 [15] 허정윤, ‘과학적 무신론의 형성 과정에 관한 소고’, *창조론오픈포럼*, Vol.8, No.2, pp.45-60, 2014.
 [16] Darwin, Charles, *종의 기원2*, 신원문화, 2006.
 [17] Mayer, Gustav., Friedrich Engels, *Eine Biographie*, Verlag Ullstein, 1932(as reprint 1975).
 [18] 칼 마르크스, *독일 이데올로기*,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19] 윤진, *헬레니즘*, 살림, 2003.
 [20] 양승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사회과학원, 1999.
 [21] 우광호, *유대인이야기*, 여백, 2010.
 [22] 김원곤, *북한의 교회와 선교 알아보기*, 한맥, 2011.
 [23] Herbert Kane, *선교신학의 성서적 기초*, 도서출판 나단, 1988.
 [24] Rolland Allen,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2.
 [25] 김승호, *선교와 상황화*, 도서출판 토라, 2007.
 [26] 제임스 F. 앵겔, *당신의 뗏목은 전달되고 있는가?*, 조이선교회출판부, 1995.
 [27] Seyoon Kim, *The Origin of Paul's Gospel*,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1.

[28] D. A. Carson, *The Challenge from the Preaching of the Gospel to Pluralism*, Criswell Theological Review 7.2, pp.15-39, 1994.

[29] 가스펠서브, *교회용어사전*, 생명의말씀사, 2013.

[30] F. F. Bruce, *The Book of the Acts[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8.

[31] 이만열,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32] 통일연수원 편, *민족통일론(북한실태)*, 통일연수원, 1993.

저 자 소 개

조 해 준(Hae-Jun Cho)

정회원



- 2000년 8월 : 삼육대학교 신학과 (문학사)
- 2019년 2월 : 삼육대학교 신학과 (목회학석사)

〈관심분야〉 : 선교, 성경교수, 사회복지선교

송 창 호(Chang-Ho Song)

정회원



- 1986년 2월 : 삼육대학교 신학과 (문학사)
- 1998년 3월 : AIIAS Seminary (목회학석사)
- 2000년 10월 : AIIAS Seminary (목회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교회성장, 예배, 청소년, 문화선교